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 감사함이 없는 가슴은 차갑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들판의 곡식도 조금씩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비단 농부뿐 아니라 우리 각자 1년의 결실도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하거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거나, 때 아닌 우박이 쏟아지거나 하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몇 달 전 우박으로 교구내 여러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고, 본당내 복숭아 과수원 몇 교우농가도 속절없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곧 출하를 앞둔 시점에서 피해를 당하고 한 해 농사를 망쳤으니 그 타들어가는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노력한 만큼 정당하고 합당한 대가가 따라오지 않으면, 좌절하거나 실망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노력에 비해 결실이 적으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만족하고 정의라 생각하지만 그 기준에 어긋나면 불평하고, 정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보수를 받아서 일꾼들이 투덜거렸습니다.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피약 별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마태 20,11) 도대체 우리의 기준,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한 시간 일했으면 한 시간만큼의 보수

---

를, 열 시간 일했으면 열 시간만큼의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셈법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마태 20,15)

인간은 높고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등반가는 높은 산을 정복해야하고, 경제인은 경제지표가 좋아 고수익을 통해 돈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정치인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정권을 잡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높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산에 높이 올라갈수록 물이 없고 공기가 부족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내려올수록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우고 내려와야 합니다.

비우고 내려옴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자꾸만 올라가려하고 주님은 내려오라 하십니다. 비우고 내려올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기준에는 꼴찌지만, 주님 기준으로 첫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마태 20,16)

주님은 원하십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남이 받은 것에 대해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 후 처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루카 17,10)하고 겸손되이 기다리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본당에서 열심히 전교활동을 해서 예비신자 환영식 때, 서른 명은 와야 되는데 다섯 명밖에 오지 않았어도 그 다섯 명을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전교 활동한 노력들이 언젠가는 결실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온 정성을 기울였기에 이번 달에는 3백만 원의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2백만 원밖에 안 나왔어도 그 2백만 원을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미워하고 말도 안하고 지내고 있는 이웃에게 큰맘 먹고 인사하고 화해의 악수를 청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여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수확의 계절, 풍성한 수확 열개를 기대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곱 개밖에 안 나왔어도 그 일곱 개를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이 없는 가슴은 차갑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가슴은 너무 추워서 사랑의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가슴의 온도-좋은 생각) 감사가 없으면, 작은 다툼, 작은 상처에도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감사가 없으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강론을 해도 차갑습니다. 남이 받은 것에 대해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주간이 됩시다.

서문동 본당 허춘도 토마스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5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뛰어넘어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늘 나라 포도원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일꾼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주인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다짐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입당성가** : 461번 ‘나는 주님 포도밭’

### 본기도

† 하느님,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사랑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55장 6절-9절

**안 내** : 하느님의 권능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초월합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서는 크고 깊은 심연 같은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을 찾고 부르면 크신 자애로 우리를 반기시고 가엾이 여기실 것입니다.

**화답송** :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제2독서** : 필리피서 1장 20절-24절.27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묵 상** : 바오로 사도는 살든 죽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떠나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날을 고대하지만 현실에서 육신으로 행하는 사도직 활동도 소중히 여깁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20장 1절-16절

---

**강론** : ‘감사함이 없는 가슴은 차갑습니다.’(1-2쪽)

**예물준비성가** : 221번 ‘받아주소서’

**영성체성가** : 502번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의 생각과 길은 드높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루 품삯을 주기로 한 하느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언제부터, 누가 더 많이 일했는지를 가리지 않으시고  
삶의 시간을 모두 인정해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침묵>

오늘도 하느님께서서는 방황하는 일꾼들을 찾아  
당신 포도밭에서 양식을 얻게 하십니다.  
하느님의 양식은 구원이며  
우리는 그 구원에 초대받은 일꾼들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 공소사목 성금**

김창수님	50,000원	화북공소	50,000원
김달하님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5,33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 림

### ■ 안동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9월 27일(주일)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 과정 안내 :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영적 일기 쓰기, 격주로 모여 강의를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면화하기.
- 연수 일정 : 9월 30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9월 30일/ 10월 14일/ 10월 28일/  
11월 11일/ 11월 25일/ 12월 9일/  
12월 23일/ 12월 30일 - 총 8회
- 장소 : 영해 성당
- 내용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강의와 말씀 심화 프로그램)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주임)
- 대상 : 동해지구 신자
- 회비 : 1인 40,000원  
(영적 일기 노트 비용 포함)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 교구장배 게이트볼 대회

- 일시 : 10월 9일(월) 09:00
- 장소 : 안동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 구장

### ■ 여성연합회 피정

- 일시 : 10월 10일(화) ~ 11일(수)
- 장소 : 강원도 인제 다물 피정의 집,  
인제 자작나무 숲
- 대상 : 본당 여성단체 간부
- 참가비 : 45,000원(1박 4식)
- 준비물 : 미사준비, 성서, 묵주, 세면도구,  
잠바(저녁 추위), 편안한 신발,  
모자, 필기도구

### ■ 못자리 신앙잔치

- 일시 : 10월 14일(토) 10:00 - 17:00
- 장소 : 안동 KBS 공개홀, 운동장
- 대상 :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
- 준비물 : 주일미사 준비, 운동복, 운동화,  
개인식수, 명찰(공문 참조)
- 참가비 : 1인 5,000원(유치부 포함)

###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6

- 일시 : 10월 16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주제 : 요한 복음 2
- 준비물 : 신, 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 교구 말씀축제

- 일시 : 10월 22일(주일) 09:3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내용 : 성경 암송대회, 성경 장기자랑 및 기타 작품 전시
- 참가비 : 1인 12,000원(도시락, 생수 제공 및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 ■ 문경 엠마오 기쁨 피정의 집 축복미사

- 일시 : 11월 17일(금) 11:00
- 장소 : 문경읍 지곡리 태극기마을 끝동네  
(문경성당에서 5분거리)

### ■ 안동가톨릭문인회 시화전

- 일시 : 10월 21일(토) ~ 29일(주일)
- 장소 : 교구청

### ■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사업'을 위한 본당 사료 수집 요청

- 목적 : 역사자료 보존 및 활용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보관하는 오래된 사진, 책, 성물 등
- 마감 : 10월 30일(월)까지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 ■ 가톨릭상지대학교

####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 1차 모집 : 9월 11일(월) ~ 9월 29일(금)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5장  
사랑의 결실

확대 가정의 삶

노인

192.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노인들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무질서한 산업 발전과 도시화를 뒤따라, 과거와 현재에, 노인들이 부당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은사”로 우리가 “세대의 연속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손주에게 확실히 물려주는 이는 조부모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자신의 조부모 덕분에 그리스도교 생활에 입문한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말이나 애정, 또는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이 역사가 자신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지금 오래된 길의 상속자이며 자신들보다 앞선 모든 이를 존경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도록 도움을 줍니다. 역사와의 모든 유대를 끊은 이들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신들이 현실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회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회가 노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노인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노인들의 지혜를 존중하는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193.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결점입니다.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단순한 사고방식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취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미래를 건설

---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이 없다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을 기억해 보십시오”(히브 10.32 참조). 노인들의 이야기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노인들의 이야기는 청소년들을, 그들의 가정과 지역과 나라의 살아있는 역사와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살아 있는 기억인 조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돌보지도 않는 가정은 붕괴된 가정입니다. 반면에 이를 기억하는 가정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해서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거나 그들을 내버리는 사회는 치명적 바이러스를 지닌 것입니다.” “이는 뿌리가 뽑힌 사회입니다.” 단절과 근절, 그리고 우리 삶에 틀을 부여하는 확실성의 소멸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고아가 되었다고 느끼게 되는 현상은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자녀들이 집단적 역사에 뿌리내릴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하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형제자매 되기

194. 시간이 흐르면서 형제자매의 관계는 깊어지고 “가정에서 자녀들 사이에서 형성된 형제적 유대는 타인에게 열린 교육적 환경으로 강화될 때에 자유와 평화의 훌륭한 학교가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형제자매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사는 법을 배웁니다. …… 어쩌면 우리가 늘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바로 가정이 세상에 형제애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형제애를 체험하며, 형제애는 가정의 사랑과 교육으로 커지며, 그 형제애의 품격이 사회 전체에 대한 약속처럼 빛을 발합니다.”

195. 형제자매와 더불어 성장하면 상호 배려, 곧 도움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하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어린 형제자매들을 위한 배려와 인내와 애정이 가정에서 발견될 때에 형제애가 특히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은 심오하고 소중하며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서로를 형제자매로 대하는 방법을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때로는 상당히 힘들지만 사회성을 키우는 참된 교육이 됩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자녀를 한 명만 두는 것이 대세라 형제자매의 경험이 점점 더 드문 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두 명 이상 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하나뿐인 자녀가 혼자서 또는 고립되어 성장하지 않도록 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 다음에 계속 -



## 제주도 성지 순례(3)

조태영 세례자요한  
(안동가톨릭문인회)

2017년 6월 25일 오늘은 성지순례 마지막 날이다. 오전 9시경에 황사평 성지에서 신앙선 조들에게 참배를 했다. 황사평 성지는 신축교안 때 관덕정에서 참수를 당한 천주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조성된 곳이다. 1990년 제주교구는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성역화 했다. 이곳에는 제주교구의 성직자들도 안장되어 있고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의 순교 현양비도 있다. 중증장애인시설인 애덕의 집에서 주일미사를 올리고 성이시들 목장으로 향했다.

성이시들 목장은 1954년 제주 한림공소에 첫 부임한 25살 난 아일랜드 출생의 젊은 사제인 임피제(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신부의 피와 땀과 사랑에 의해 일구어졌다. 제주도는 1948년의 4.3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었고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하여 가난과 절망은 더욱 극에 달했다. 신부님은 그들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하여 성당 마당에서 돼지를 키워 신자들에게 하나 둘 분양을 했다. 그렇게 하여 양돈 농가가 늘어나자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며 한라산 자락인 한림 주변의 땅을 개간하여 1961년 농부들의 수호성인인 성이시들의 이름을 따 성이시들 중앙실습목장을 건립하여 버려진 땅, 척박한 황무지에 씨앗을 뿌려 제주도민들의 희망을 심었다. 하느님의 축복 속에 목장은 날로 성장하여 제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우리나라 초기 축산업의 기술과 종자 보급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주시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해 병원, 양로원, 유아원 등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에도 크게 기여했다. 성이시들 목장 안에는 성이시들 양로원, 피정 센터, 젊음의 집, 금약성당, 성이시들 어린이집, 클라관상수녀원, 농촌산업협회, 삼위일체성당, 새미(삼미소) 은총의 동산 등이 있다.

우리는 새미은총의 동산을 순례했다. 면적은 약 8만여 평에 이른다. 새미는 주님의 은총과 순례객의 기도가 샘물처럼 이어진다는 뜻이다. 새미은총의 동산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최후의 만찬까지 있었던 중요한 12개의 사건들을 재현한 <예수님 생애공원>을 지나면 삼위일체성당이 있다. 성당 1층은 좌석이 2,000석 정도이고 옥상에는 중심부에 제단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약 5천여 명이 앉아 야외미사나 큰 행사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 삼위일체 성당에서 호수로 가는 길에는 삼나무가 무성하고 십자가의 길 14처가 실물 크기의 조각상으로 재현되어 있어 더욱 실감이 났다. 마지막 14처를 지나자 호수가 있었다.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목주기도 15단을 바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호수를 한 바퀴 돌면 성모님이 발현한 루르드의 성모동굴을 본뜬 동굴과 성모상이 있다. 성모상 앞에서 2박 3일의 성지 순례를 돌이켜 본다.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은총의 시간이었다. 특히 지금도 진행 중인 성이시들 목장은 많은 것을 깨우쳐 주었다. 한 알의 밀알이 제대로 썩을 때 이렇게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순교의 의미도 확대 해석되어 적색순교, 백색순교, 녹색순교라고도 한다. 정난주 마리아의 삶을 백색순교, 임피제 신부의 삶을 녹색순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삼식이라고 남편을 구박하지 않는 것도,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고 보내는 것도, 술과 담배를 절제하는 것도,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해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나, 구걸하는 거지에게 자비를 베풀어 거지와 몇 푼 나누어 쓰는 것들도 요즘 세상에서는 모두 작은 의미에서 백색순교나 녹색 순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성지 순례 책자까지 만들어 빈틈없이 준비하신 신부님과 수녀님, 열과 성의를 다해 안내해 주신 사도요한과 시몬 형제님께 함께한 모든 이의 마음을 모아 감사드립니다.